

안자베뚜룽구 사업장의 산소망 학교 이야기

새로운 희망을 가져온다는 뜻의 산소망 학교는 2013년 밀알복지재단과 SBS희망TV 모금을 통한 학교 건물 건축으로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산소망 학교가 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누루 선생님의 작은 학교

주누루 선생님은 안자베뚜룽구 지역의 아동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학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타지에서 왔다는 이유로 주누루 선생님에 대한 경계가 심했던 주민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자녀 세 명과 이웃집 아동 한 명, 총 4명의 학생으로 학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안자베뚜룽구와 첫 만남

마다가스카르에서 활동 중인 이재훈 지부장과 박재연 프로젝트 매니저 부부는 주누루 선생님과 인연으로 2006년 안자베뚜룽구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 이재훈 지부장은 4일 동안 마을에 머물며 아픈 주민들을 치료해주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무당을 찾아가던 주민들은 처음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후 금세 증상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원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산소망 학교 건축과 변화

이후 2013년 밀알복지재단과 SBS 희망TV 모금을 통해 안자베뚜룽구에 희망학교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4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학교는 어느덧 220여명의 재학생이 공부하는 규모 있는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더불어 상급학교 진학을 원하는 아동들을 위해 학교 내에 중학교 분교를 설치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4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산소망 학교가 중등교육까지 제공하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자베뚜룽구에는 크고 작은 소망들이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알립니다!

- 1 밀알복지재단에 도착한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 과정을 거쳐 2016년 1, 5, 9월에 사업장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날 아동에게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 '2015년 해외결연 새해편지 보내기 캠페인, 너의 2016년을 응원해'가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나의 후원공간-회원 공지사항]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3 회원님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 또는 1600-0966(회원전용번호)를 통해 정보를 변경해 주세요. 변경된 주소지로 후원해주시는 결연아동의 소식이 발송됩니다.



다섯번째 이야기

마다가스카르 사업장 소식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사업장 안자베투롱구

도시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안자베투롱구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건문을 넓힐 수 있도록 2015년 4월에 '폴리아라'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차로 5시간 정도 이동해야하는 '폴리아라'는 방송국과 항구, 공항이 있는 큰 도시입니다. 도시에 나간다는 것, 차를 타본 적도 없는 40여명의 아동들은 새로운 세상을 마주한 신기함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개교 이후 처음 떠난 이번 수학여행은 아동들이 새로운 꿈을 갖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수학
여행

학습
환경개선



사업장 안자베투롱구

마다가스카르의 주민 대부분은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식료품을 제외한 물품은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님의 어려움을 덜고 아동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각 사업장에서는 회원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각종 학용품들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안자베투롱구 사업장에 250개의 책걸상을 지원해 아동들이 바른 자세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장에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아동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장 안자베투롱구

남반구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는 한국과 계절이 반대입니다. 한국에서는 더위를 피해 휴가를 떠나는 8월, 250명의 마다가스카르 아동들은 겨울캠프를 떠났습니다. 아동들은 2박 3일간의 캠프동안 큰 공 굴리기, 줄다리기 등을 하며 협동심을 배우고, 그림 그리기를 통해 창의력을 키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온 자원봉사자가 준비한 한국의 전통무용과 연극공연을 관람할 때 가장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고, 회원님이 계시는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이번 캠프는 아동들의 마음속에 더욱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겨울
캠프

겨울옷
지원



사업장 암바나뚜바나, 아이나 피티아바나

해발고도가 높은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 비해 계절간 기온차가 큼니다. 무더운 날씨 때문에 주로 얇은 옷을 입는 아동들은 두터운 옷이 마땅치 않아 추운 겨울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따뜻한 겨울옷을 지원하였습니다. 새 옷을 입고 서로 자랑하며 즐거워하던 아동들은 어느 때보다 따뜻한 겨울방학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 돌아왔습니다.

사업장 암바나뚜바나

마다가스카르의 초등학교 진학률이 75%인 반면 중학교 진학률은 30%에 불과합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아동 중에서도 중학교를 졸업하는 아동의 비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마다가스카르 아동 100명 중 중학교를 졸업하는 아동은 7명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암바나뚜바나 사업장에서는 아동이 학업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5년 8월, 지역에서 1등을 차지한 친구를 포함해 초등학교 졸업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암바나뚜바나의 더 많은 졸업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해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장학금
수여

미술,
음악 수업



사업장 암바나뚜바나

회원님의 후원으로 마다가스카르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어 있던 미술과 음악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술시간에는 가족 그리기, 자기 얼굴 그리기, 종이접기 등 다양한 미술도구를 이용하여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시간에는 리코더 연주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안정적인 정서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예체능 수업을 통해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고 각자의 꿈을 키워나가길 기대해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편지



마다가스카르 아동을 후원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내전으로 인해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기아문제가 심각합니다. 막대한 현실이지만 아동들은 회원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업장의 모든 스태프들은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만들어갈 아름다운 마다가스카르를 꿈꾸며 매순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시작된 마다가스카르 아동들은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모습입니다. 새학기를 맞이한 아동들이 즐겁게 공부하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 프로젝트 매니저 박재연 드림

COMING
SOON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 의약품 지원 사업장 공통

아동들의 신체발달과 건강증진을 위해 구충제, 비타민C, 멀티비타민 등을 지원할 예정

> 교실 증축 사업장 암바나뚜바나

학년별로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15년 11월부터 교실을 증축할 예정

> 학교 수리 사업장 안자베투롱구

2016년 2월,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넓은 교실 및 기구재를 수리·보완할 예정